

“모든 사안 다 특검하자” 한국당의 어깃장

여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놓고 공방
민주 ‘김학의 특위 구성’ 등 전방위 압박…특검엔 신중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김학의 게이트’로 명명하고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 칼날을 세웠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학의 사건에 대한 추가 의혹이 계속 터지고 있다. 전(前) 정권 청와대가 나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온갖 외압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쯤 되면 이번 사건을 ‘김학의 게이트’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대표를 겨냥, “김학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자는 국

민의 요구를 공작정치, ‘황교안 죽이기’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비호하기 급급하다”며 “(황 대표)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수사를 자정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당도 공작정치니 표적수사니 하며 본질을 호도하지 말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당내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억울하다면 오히려 당시에 누가, 왜 수사를 방해했는지 밝히는데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당시 경찰 수사팀이었던 경찰청 수사국장, 수사기획관, 특수

수사과장, 범죄정보과장 등이 전부 교체된 건 정권 차원의 ‘수사방해 책동’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검찰이 이번에는 진상을 밝혀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당내 ‘김학의 특위’를 출범시켜 의혹 연루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김학의 특검’ 도입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검찰의 재수사가 가시화한 마당에 굳이 무리하게 특검을 추진하되 ‘야당 죽이기’용 특검이라는 한국당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김 전 차관 사건을 비롯해 장자연, 드루킹, 손혜원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가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학의 특검을 제안한다. 그

대신 맞바꿔 드루킹 특검도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은 본인들 허물을 가리기 위해 적폐와 전 정권 탓으로 황교안 대표 죽이기에 올인하는 것”이라며 “저는 김학의 특검보다 더 급급한 게 드루킹 특검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드루킹, 손혜원 의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 많은 의혹이 있다. 최근 이주빈 전 서울경찰청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의혹과 여담이 하려하는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등에 대한 특검을 함께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당 공식입장”이라며 “정쟁의 수단으로 특위를 설치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것 모두를 특검으로 (가서) 같이 의혹을 밝힐 것으로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이해찬 베트남 출국

정부 신 남방정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신(新)남방정책 핵심국가인 베트남에서 오는 27일까지 2박3일 동안 머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출국 직전 인천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베트남은 신남방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라면서 “우리나라와 인접교류나 경제교류가 제일 많은 나라이고 앞으로도 잠재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다. 여당끼리 양해각서(MOU)도 맺어서 공공외교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베트남에 도착, 삼성전자 제1공장을 둘러본 뒤 교민들과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베트남과 정당 교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베트남 공산당과 정당 간 교류를 늘리는 내용의 MOU도 체결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26일 쯔꾸억 브영 베트남 공산당 상임서기를 만난다. 오후에는 베트남 국가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쉰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면담한다. 국가서열 2위 응우옌 쉰원 폭 총리로 예방한다.

이 대표는 27일에는 ‘쌀링크(쌀수확기 명물인 베트남의 히딩크)’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조찬을 갖고 이후에는 현지 진출 기업인과 오찬 간담회도 갖는다. 오전에는 김한웅 베트남 한국상공회의소장, 김현 포스코건설 지사장, 최주호 삼성전자 단장 등이 참석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민주·정의당 단일후보로 결정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시장에서 단일화 소감을 발표한 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정미 대표, 여 후보, 심상정 전 대표. /연합뉴스

‘경남 창원성산’ 진보 단일후보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

고(故)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창원성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25일 결정됐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24~25일 이틀간 창원성산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여 후보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서는 창원성산 선거구 민주

당·정의당 단일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지를 물었다. 양측 합의에 따라 조사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여 후보는 앞으로 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란 명칭을 선거 현수막·유세차 등에 표기하는 등 두 당의 단일후보로 된다.

여 후보는 집권당인 민주당이던 우군을 얻은 데다 기존 진보단체와 노동자의 지원까지 합쳐져 ‘진보정치 1번지’ 창원성산 유

권자들의 표심 결정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권민호 후보는 결과에 승복하고 이날 사퇴서를 제출했다. 재선 거세지장 출신인 권민호 후보는 지난해 민주당 창원성산 지역위원장에게 임명됐지만, 창원성산과 별다른 연고가 없는 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여 “실거주 목적” vs 야 “부동산 투기”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 증여, ‘갭 투자’ 등 부동산 투기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엄호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2주택 1분양권 보유자로 25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올렸음에도 솔직하지 못한 해명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결과적으로 20억원대가 넘는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장관 임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국토부 잔뼈가 굵은 만큼 국민이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정책이 많다”며 “후보자가 소유한 주택 관련 의혹이 많은데, 공직자로 지혜롭지 못하게 재산을 관리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해명할 시간을 줬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비록 주택을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낮은 자세를 취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 역시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면서 “후보자가 분당은 20여년, 잡실은 16년 장기 보유했는데 이렇다면 잘못된 게 아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최 후보자를 엄호했다.

반면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후보자가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이라며 “국토부 차관까지 지낸 분이 문재인정부 주택정책과 정반대 길을 걸어와 국민이 많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 국토부 2차관이었고 당시 2주택자였는데 퇴직을 앞두고 투기 목적이 아니면 굳이 세종시에서 60평대 펜트하우스에 청약할 이유가 없다. 현재 이 아파트는 7억원의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잡실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세종시 펜트하우스에 대해서는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고 8월에 준공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분당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최 후보자는 “증여는 하나의 (다주택) 정리 방법이라 생각했고, 빠른 시간 안에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떳떳하고자 증여 방법을 택했다”고 해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찬반 팽팽

리얼미터 조사 찬 51.4%-반 46.2%…당청 지지도 상승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데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성인 503명에게 선거연령 만 18세 조정안에 대해 설문(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찬성은 51.4%(매우 찬성 29.0%·찬성하는 편 22.4%)였다. 반대는 46.2%(매우 반대 22.9%·반대하는 편 23.3%)로, 찬성응답 보다 오차범위 내인 5.2%포인트 더 낮았다.

리얼미터는 지난해 4월 동일한 여론조사(찬성 59.0%·반대 38.2%)와 비교해 찬성은 7.6%포인트 하락한 반면, 반대는 8.0%포인트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 오른 47.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2.5%포인트 내린 47.2%를 기록, 긍정평가와의 격차는 0.1%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전주에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4.8%포인트 앞섰다.

민주당 지지율도 전주 대비 2.3%포인트 오른 38.9%를 기록, 주간집계 기준으로 3주간의 내림세를 마감하고 반등했다. 한국당은 0.4%포인트 내린 31.3%로, 4주간 이어졌던 가파른 상승세가 끊기며 하락 전환했다.

정의당은 0.7%포인트 오른 7.6%로 다시 7%대를 회복했다. 바른미래당은 0.8%포인트 떨어진 5.1%를 기록, 주간집계 기준으로 작년 6·13 지방선거 패배 직후 기록했던 정당 후 최지지와 동률로 조사됐다. 민주평화당은 0.5%포인트 오른 2.6%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이제 노안과 백내장을 동시에 해결하세요

신세계안과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

- 기존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낭 절개를 수기로 진행
-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은 3D OCT 통해 안구 상태 실시간 확인
- 안구 스캔 후 자동으로 3D 알고리즘을 통한 정밀 분석
- 3D 펄스레이저 레이저 시스템으로 정교한 수술 가능
- 3차원 입체절개 방식으로 개개인의 정확한 맞춤 난시교정 가능
- 개별 맞춤형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 삽입으로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시력 가능
- 자동 안구보호 시스템으로 수정체낭 파열, 홍채 손상 등 합병증 방지
- 레이저 최소절개 수술로 다음날부터 돌보기 없이 일상생활 가능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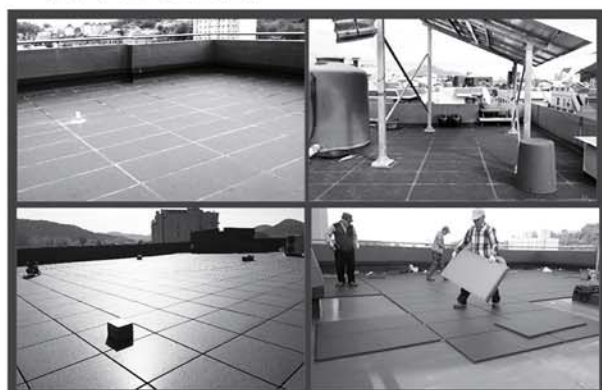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